# 등잔 밑보다 등 뒤가 더 어둡다

## (시편 36:1~12)

1.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2.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3.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4.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5.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7.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8.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9.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등잔 밑보다 등 뒤가 더 어둡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등잔 밑보다 등 뒤가 더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燈下不明)”라는 속담은 가까이 있는 것이 도리어 알기 어렵다. 또는 남의 일은 잘 알면서도 오히려 제 일은 잘 모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사범들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총격전을 벌여서 그 자리에서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필리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가 마약 밀수에 관여되었다는 제보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잘 적용되는 예입니다. 또한 암 전문의가 많은 사람들의 암을 고쳤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암을 발견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두운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업은 아이 삼년 찾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업고는 삼년 동안 아이를 찾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즉 가까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다른 곳에 가서 오랫동안

찾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게 아니라 등 뒤가 어두운 셈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 말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 양심상 개업예배 때의 설교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도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그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을 하시는 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잘 되기만을 기도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등 뒤가 어둡다는 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업하신 성도님은 앞으로 사업을 잘 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측은하기 한이 없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사업을 통해 얻으려던 기쁨과 만족은 사실은 이미 내 등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이 잘 되는 미래를 기대하며 앞으로 나가기에 바쁠 뿐, 지금 이 자리에서 등 뒤를 돌아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행복을 찾는 순례의 여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 순례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기르기 전에 이미 내 등 뒤에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등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머나먼 여정의 시작이여서는 안 됩니다. 등을 돌렸을 때에 찾을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안고 출발하는 사명의 길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을 찾기 위한 순례의 여정 대신에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의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등 뒤가 어두운 상태를 내버려 두면 집안에 마약 밀수범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마약사범들을 총살하고 다니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등 뒤에 있는 행복과 만족은 고스란히 놔둔 채로 하지 않아도 될 수고와 고생을 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서는 안 되지만 정말로 어두움이 없어져야 할 곳은 내 등 뒤입니다.

'업은 아이 삼년 찾는다.'라는 속담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더욱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1~4절까지는 다시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고 합니다.

앞서 시편 32편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죄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허물의 사함을 얻고'라고 할 때의 허물에 대한 죄악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솨(פֶּשַׁע, pesha')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반역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

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추석이 되어서 시부모님이 오시게 되면 며느리들이 시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집안을 말끔히 정리합니다. 그분들의 눈이 조심스럽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1~4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묘사한 뒤에, 5~9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음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채워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등질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5~9절에서 드러납니다.
5~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라고 합니다.
하늘과 그 아래의 공중과 그 아래의 산과 그 아래의 바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점차적으로 낮은 곳으로 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업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장사를 잘해서 돈 많이 벌어 기쁨을 얻고자 할 때에, 바로 그 등 뒤에는 그토록 사업을 잘해서 얻고자 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등 뒤에 있는 행복이 대체 어떤 것인지를 내용적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란 곧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얇은 유리처럼 바스러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조그만 가시가 손톱 밑에 박히면 당장 마음이 불편해지고 원망이 나오는 허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의 최고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라고 기도했을 때에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 받기를 기도해야 하고

이것이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려오게 되는데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치고,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실과 의와 심판을 관통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진실에도 인자하심이 있으며, 의에도 인자하심이 있으며, 심판에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심은 변치 않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책임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 수 있다고 나서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등 뒤에는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세상을 향하느라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짐으로서 진실하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간사함은 마음에 먼저 세상을 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에 먼저 돈을 담고 개업하는 사업을 담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은 나를 수단 삼아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관계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당신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나더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셔서 나를 수단 삼기 위해 사랑하라고 하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심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에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가졌다면 그 증거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랑하셔서 나를 수단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가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대한민국 교회를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시려고 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무병장수하고자 하나님을 끌어들이며,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간사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발을 씻기라'고 하실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놓치는 간사한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야 맙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 마음에 담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진실하지 못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등지면 주의 의를 잃어버립니다.
6절에서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라고 합니다.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거나 닳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코 변함이 없는 견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견고하여 변함이 없는 주의 의를 등지고 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의 의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주체이십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오류나 실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사울의 마음에 있는 악이 작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부당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는 노래를 한 것은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이며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삼지 않는 습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작전명 미친 바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해낸 것과는 정반대에 서있는 미친 바보로서 여기는 자아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왕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나라가 통치되는 여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으로서의 자아를 받아들이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입 기운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위협을 받아 쫓길 때에는 그 스트레스에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폭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자들의 삶까지도 이끌어 가심을 가르쳐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곤란한 환경에 처해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조금의 오류도 없으십니다. 내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겁나고 두렵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잘못됨이나 오류가 전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는 오점이나 오류가 없는 삶이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말뚝과 같은 가시를 가지고 살면서 그 아픔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역동성이 유럽을 뒤집는 선교 역사의 발판을 깔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상태에 하나님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짜고짜 아플 때에 무조건 병 고침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곧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고발하는 기도일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돈 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심판'은 '선악을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큰 바다'는 히브리어 테홈(תְּהוֹם, tehom)으로 '깊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산과 같은 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쫓겨 다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다윗이 쫓겨 다니게 하려니 사울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류가 없으심 안에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자로 더 잘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심에는 나를 위한 진실하심이 들어있고 나를 위함 안에는 나를 위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맞이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무한하신 판단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7~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등진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는 말씀대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시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판단이라는 하나님의 빛이 삶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주의 빛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진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나의 삶에 대한 긍휼히 여기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무한하신 지혜의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삶을 놓치겠습니까? 이것을 놓치고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멀고 먼 기약도 없고 목적도 없는 신기루를 위한 행복 찾는 순례의 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고 등 뒤를 돌아보십시오. 마음을 등 뒤로 돌리는 역사를 날마다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의 예표로 상번제가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을 등졌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판단을 받아들이고 모셔 들이기 위한 향함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업은 아이 삼년 찾는 불행한 역사가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바라봄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원죄의 체질상 자꾸 세상을 향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